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은정 하차, SBS·제작사가 이면 합의 강요”

방송연기자노조, '다섯손가락' 복귀와 최영훈 PD 하차 촉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은 티아라 은정(사진)(24)이 최근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에서 전격 하차한 것과 관련해 SBS와 제작사 측의 이면 합의의 요구가 있었다고 28일 주장했다.

한연노는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제작진이 지난 21일 은정 측에 출연료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티아라 사태'로 빚어진 제작지원사·협찬사의 모든 손해와 제작지원 반환금을 배상토록 하는 '추가 변경 합의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연출자인 SBS 최영훈 PD가 은정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PPL을 두고 은정 측과 제작사·방송사가 빚은 갈등도 은정의 하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연노는 “사건의 이면에는 PPL을 유지하려는 제작사와 방송사의 야합 때문이라고 볼만한 사연이 있다”며 “SBS와 연예인인 엠(제작사)가 은정에게 방송 중 자신들이 추천한 협찬 물품을 들고 촬영하도록 요청했으나 은정이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배우들을 현실팩처럼 저버리는 작태야말로 출연진과 스태프의 고통을 짜내 배를 불리는 구태의 전형”이라며 은정의 복귀와 최 PD의 하차를 요구했다.

한편, SBS 드라마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런 계약 제시 건은 제작사와 은정의 소속사 간에 이뤄진 이야기라 우리는 몰랐

다”고 말했다. 앞서 은정은 '다섯손가락'의 제작발표회까지 참가했지만 드라마의 1,2회 방송이 나간 후인 지난 22일 제작사로부터 전격 하차를 통보받았다.

이에 (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연노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SBS와 제작사에 은정의 복귀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SBS는 “제반사정에 대한 잠시간 논의와 고심 끝에 은정의 하차를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티아라가 최근 '왕따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은정의 하차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섯손가락' 제작사 ㈜에이인엔엠이 추가 이면합의 제안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제작사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은정의 소속사가 제작사가 원래 계약보다 나쁜 조건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정식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은정 하차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고 은정 소속사에서 먼저 원래 계약보다 불리한 사안을 제시하고, 이미 계약된 기업 쪽의 손해 배상을 감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하차 결정은 제작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간접광고(PPL) 때문에 은정을 하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1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은정을 하차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또 “티아라 사건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진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며 “소속사에 정식 통보했고, 은정을 배려해 자진하차 형식을 취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소속사가 억지 주장을 펴뜨렸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은정 소속사가 계속 억지주장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와 법적 대응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9일(음 7월 12일 壬戌). 운세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including shows like 'The Great Escape', 'The Great Escape 2', and 'The Great Escape 3'.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three columns: 1. 'I just listen to the radio' (저는 그저 라디오를 들어요) with Korean and English dialogue. 2. '食少事煩(식소사번)' (밥/먹을 식, 적을 소, 일 사, 번거로운 번) with Korean and Chinese text. 3. '马后炮 mǎ hòu pào' (말을 진격시키고 나서 포를 쏘면?) with Korean and Chinese text. 4. '歌手に憧れていました。' (가수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with Korean and Japanese text.